

# 초등학생의 성별, 문화성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김은진 · 이희영<sup>†</sup>

(민락초등학교 · <sup>†</sup> 부경대학교)

## Gender, Cultural Disposition and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Eun-Jin KIM · Hee-Yeong LEE<sup>†</sup>

(Minrak Elementary School · <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cultural disposition and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spositions and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dispositions that children have?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at children use? Third, wha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dispositions and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64(283 male and 281 female) 5th and 6th graders. Research instruments used to collect data were INDCOL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s,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ross-tabs and Two-way ANOVA. As a whole, children strongly showed collectivistic pattern and there were no sex differences in terms of cultural dispositions. The distributions of styles were in the order of HC>VI>VC>HI. The distribution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generally were in the order of integrating and compromising>Avoiding>Dominating>Obliging for total sample and there were significant sex differences in the style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ultural disposition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tegrating/compromising and dominating styl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cultural dispositions but there were no interactive effect of sex and cultural dispositions i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on theory and practice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made.

*Key words* : Children, Cultural dispositi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 I. 서론

인간은 성장하면서 가정과 학교, 사회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게 된다. 이런 인간관계의 경험이 만족스럽고 효과적일 경우 개인에게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불만족스럽고 비효과적일 경우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495, hylee@pknu.ac.kr

영향을 미친다(강진령·유형근, 2000). 특히,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아동은 가족관계에 대체로 한정되었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또래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이때 아동들은 또래들 중에서도 친구관계를 맺은 몇몇 아동과 더 빈번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며 다른 또래들보다 서로의 태도 및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 시기에 친구로부터 받게 되는 지지나 애정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옥철, 2004). 이런 이유로 아동기에 친구로부터의 수용 여부는 미래의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제행동이나 정서장애 등을 예측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Roff, Sells, & Golden, 1972).

친구관계는 또한 부모 및 성인과의 관계와는 다른 경험을 아동에게 제공한다. 아동과 성인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아동이 주로 성인의 지시나 주도에 따르는 상호작용을 하지만, 친구관계는 수평적 권위에 입각하여 아동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균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분류, 조직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키고 이를 근거로 집단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게 된다(Coie & Pennington, 1976).

그러나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갈등 양상에 직면한다. 아동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Asher, Parker & Walker, 1996; Collins & Laursen, 1994).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왕따’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 또한 대인간의 갈등을 부적절하게 해결하려는 데에서 기인한 문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조은주, 2005).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대인관계에서 목표, 기대

혹은 상대방에 대한 바람의 불일치로 빚어지는 상호간의 대립(Collins, Lauresn, & Mortensen, 1997), 혹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다양한 친사회적·반사회적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Malloy & McMuray, 1996)으로 정의된다. 전통적으로 갈등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많은 부모와 교사들은 사회화 실패의 신호(Shantz & Hobart, 1989)로써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갈등에는 반드시 역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 또한 있다. 즉, 갈등을 개인이나 집단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갈등과 갈등해결 과정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체상태를 벗어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변화의 원동력이 되며, 변화와 적응 그리고 발달의 필수적인 자극이 된다고 한다(Shantz, 1987).

이러한 갈등의 역기능적인 관점에서 순기능적인 관점에서의 인식의 확대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갈등의 해결은 곧 갈등의 제거라는 종전의 입장으로부터 주어진 갈등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로 관심을 전환시켜서 하나의 사회적 기술로써 대인간에 일어나는 갈등양상과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김혜련, 200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구 간 갈등해결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이 갈등해결 방식 혹은 전략과 관련된 변인을 찾는 노력을 해 왔으며,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이희영·천태복, 2005), 애착(김지현, 2002), 친구관계나 또래지위(김표선, 2003; 배선영, 2000), 사회적 유능감(Corcoran & Mallinckrodt, 2000), 형제관계(박미진, 2002), 지도성 기술(최창욱·김진호, 2004), 조망수용능력(박옥철, 2004), 정서표현(한혜원, 2003)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행동이란 필연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띠 수밖에 없다(조궁호, 1996). 이렇게 볼 때, 사회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령기 아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해 가는 사회, 문화, 및 관습적 맥락을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에게 있어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언어, 가치관, 지식, 신념, 기술, 규범, 행동양식 등 총체적인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문화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성원이 된다는 것이며,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양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해결 전략 사용 양상의 차이란 궁극적으로 자기화된 내적규준, 태도, 자기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최태진, 2006)이라고 볼 때,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화성향이란 갈등해결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개념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각 개인이 지니는 문화성향이라는 변인을 도입하여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문화성향이란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 지니는 신념, 태도, 자기정의, 규준과 가치의 패턴(Triandis, 1995)이며 행위자의 사고의 형태, 신념, 자기관, 대인교류 양상, 사회행동의 원동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최태진, 2006). 문화성향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틀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으로, 근래 사회심리학분야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이 상이한 문화권의 성원들이 보이는 행위를 비교,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다(한규석, 1991). 이 관점에 의하면 같은 문화권이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개인주의성향과 집단주의성향으로 나눌 수 있으며(Triandis, 1989), 같은 문화권내에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Triandis, Leung, Villareal & Clack, 1985).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갈등해결 양상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시킨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Rahim(1992)은 갈등장면에서 개인주의자들이 보다 경쟁적이거나 지배적인 스타일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Ohbuchi, Fukushima와 Tedeschi(1999)는 갈등상황에서 집단주의자들은 일차적으로 관계성을 파괴하지 않는 갈등해결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보았다.

최근 Triandis와 그의 동료들(예, Triandis & Gelfand, 1998)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 수평적-수직적(horizontal-vertical) 차원을 부가한 바 있는데, 여기서 수평적이란 평등성과 동등성, 보편성을 강조하며, 수직적이란 불평등을 수용하며 위계질서나 성취를 강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인 4가지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다른 집단주의 문화로 보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 개인이 지니는 내적기제로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갖는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평-수직 차원의 도입은 문화성향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평-수직 차원을 고려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갈등해결방식을 관련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친구간 갈등상황을 해결하고자 사용하는 전략에 있어 성차가 보고되어 왔다(Rose & Asher, 1999). 남아는 여아보다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 위협이나 신체적 힘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여아는 비교적 친사회적이고 또래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거나 해결방법을 협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남아와 여아는 또래 갈등에 대처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해석이 있다(Miller, Danaher &

Forbes, 1986). 즉 남아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의도나 계획을 예정대로 추구하는데 더 관심이 있고, 여아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치중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차는 남아와 여아의 사회화의 차이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여아는 남아보다 더 친사회적 행동이 격려되고,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의 표현이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hung & Asher, 1996).

국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제인(1994)의 연구에서 분노전략, 침착한 대화 전략, 회피/위축 전략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배선영(2000)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구간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과 회피전략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지현(2002)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회피전략과 지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영과 천태복(2005)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여학생은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성향과 관련하여서는 한규석과 신수진(1999)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 모두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자들이 다수를 점하나 집단주의 성향에서는 남자는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가 많고, 여자는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태진(2006)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문화성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대체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수직적 집단주의 비율이, 여학생은 수평적 집단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평, 수직 차원을 고려한 문화성향에서 있어서의 성차를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성별을 고려

하여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을 살펴보고,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성향은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 사용 양상은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초등학생들의 문화성향 경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사용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A, B, C 급지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600명을 표집 하였다. 연구자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600부 중 580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564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564명 중 남학생이 283명, 여학생이 281명이었고, 5학년이 288명, 6학년이 276명이었다.

### 2. 측정도구

#### 가. 문화성향 척도

본 연구의 척도는 Singelis, Triandis, Bhawuk 과 Gelfand(1995)가 제작한 INDCOL (Individualism-Collectivism) 척도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수직적 유형은 불평등을 수용하고 위계질서를 강조한 반면, 수평적

유형은 평등함과 동등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수직적 개인주의는 경쟁적이며 남들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는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수평적 집단주의는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한다. 이 척도는 4가지 하위척도를 측정하는 문항 8개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특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수평적 개인주의 .63, 수직적 개인주의 .74, 수평적 집단주의 .78, 수직적 집단주의 .53으로 나타났다.

#### 나. 갈등해결 전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2000)의 청소년용 갈등해결전략척도를 배선영(1999)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적절하도록 문항 내용을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상대방과 자신의 욕구 충족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 '지배'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절충 및 협력 전략은 자신과 친구 양쪽이 모두 상호 수용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친구와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를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거나', '친구와 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방법을 찾는' 갈등해결전략이고, 회피전략은 자신과 친구 모두의 욕구충족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친구와 나 사이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서로 다들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 갈등해결전략이다. 또한 양보 전략은 자신의 욕구 충족보다는 친구의 욕구 충족을 고려한 것으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친구의 생각에 맞추거나', '친구와 의견충돌이 있을 때 친구가 하고 싶은 쪽으로 생

각을 바꾸는' 갈등해결전략이며, 지배전략은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려하고 친구의 욕구충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가능하면 친구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거나', '친구가 내 생각을 받아들여도록 설득하는' 갈등해결전략이다. 이 척도는 하위 척도별로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리커트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해결전략의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절충 및 협력전략 .66, 회피전략 .52, 양보전략 .71, 지배전략 .72로 나타났다.

### 3. 자료처리

문화성향 및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SPSSWIN(ver. 12.0)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의 문화성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성향 하위영역별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는 한편 성별에 따른 평균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 따른 분석방법은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와 동일하였다. 즉 먼저 전체를 대상으로 갈등해결 전략 하위영역별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후, 성별에 따른 평균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위해서는 먼저 전체 및 남여에 따라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들간의 적률상관을 구하였고, 이들 상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isher의 Z'계수를 이용하여 상관계수간 차이 검증을 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 판단은  $\alpha=.05$ 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 III. 연구 결과

### 1. 초등학생의 문화성향

연구문제 1에 따라 초등학생의 문화성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주의 성향, 집단주의 성향 및 수평-수직 차원이 첨가된 4개 하위 차원별로 기술통계량(평균과 표준편차)을 산출하는 한편 성별에 따른 평균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초등학생의 문화성향 하위차원별 기술통계량과 성별에 따른 평균차 검증

문화성향	집단	n	M	SD	t
개인주의	남	283	41.72	6.08	3.52***
	여	281	43.58	6.44	
	전체	564	42.65	6.33	
집단주의	남	283	44.88	5.84	3.28***
	여	281	46.52	5.99	
	전체	564	45.70	5.97	
수평-개인주의	남	283	20.73	3.06	3.39**
	여	281	21.67	3.49	
	전체	564	21.20	3.32	
수직-개인주의	남	283	20.98	3.92	2.75**
	여	281	21.91	4.04	
	전체	564	21.45	4.01	
수평-집단주의	남	283	22.97	3.55	4.36***
	여	281	24.35	3.93	
	전체	564	23.66	3.81	
수직-집단주의	남	283	21.90	3.04	1.00
	여	281	22.16	3.09	
	전체	564	22.03	3.07	

\*\* $p < .01$  \*\*\* $p < .001$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등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 성향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그리고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보다는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성향들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개인주의,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점수 모두에서 여학생이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 2. 초등학생의 갈등해결전략

연구문제 2에 따라 초등학생의 갈등해결전략사

용 양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양보전략, 지배전략의 4개 하위영역 차원에서 기술통계량(평균과 표준편차)을 산출하는 한편 성별에 따른 평균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등학생들은 절충 및 협력전략의 사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충 및 협력전략>회피전략>양보전략>지배전략의 순서로 지배전략의 사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절충 및 협력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여타 3가지 다른 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초등학생의 갈등해결전략 하위차원별 기술통계량과 성별에 따른 평균차 검증

갈등해결전략	집단	n	M	SD	t
절충 및 협력	남	283	10.70	2.04	5.76***
	여	281	11.70	2.06	
	전체	564	11.20	2.11	
회피전략	남	283	10.91	1.93	.79
	여	281	11.04	1.90	
	전체	564	10.98	1.92	
양보전략	남	283	10.04	2.12	1.15
	여	281	10.25	2.15	
	전체	564	10.15	2.14	
지배전략	남	283	10.09	2.30	1.60
	여	281	9.78	2.23	
	전체	564	9.94	2.27	

\*\* $p < .01$  \*\*\* $p < .001$

## 3.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간의 관계

가.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3에 따라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집

단 그리고 남, 여에 따라 하위요인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전체대상의 결과를 보면 모든 문화성향은 절충 및 협력 전략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 $r=.17\sim.38$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남, 여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회피 전략은 전체집단에서 살펴볼 때 수직적 개인주의를 제외한 수평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3개의 성향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 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배전략은 전체집단에서 살펴볼 때 수평적 집단주의를 제외한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3개의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 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남, 여 모두에서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성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대상의 결과를 볼 때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는 양보전략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각 문화성향과 양보전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문화성향 하위요인과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간 적률상관

구분	문화성향	협력	회피	양보	지배
전체	수평개인	.23**	.11**	.01	.36**
	수직개인	.17**	.06	.05	.28**
	수평집단	.38**	.18**	.16**	.06
	수직집단	.29**	.25**	.14**	.09*
남	수평개인	.22** (.22)	.03 (.03)	.01 (.01)	.39** (.41)
	수직개인	.19** (.19)	.03 (.03)	-.01 (-.01)	.33** (.34)
	수평집단	.34** (.35)	.23** (.23)	.11 (.11)	.10 (.10)
	수직집단	.26** (.26)	.24** (.24)	.11 (.11)	.15 (.15)
여	수평개인	.21** (.21)	.17** (.17)	.00 (.00)	.36** (.38)
	수직개인	.11* (.11)	.08 (.08)	.11 (.11)	.26** (.27)
	수평집단	.36** (.37)	.13* (.13)	.19** (.19)	.04 (.04)
	수직집단	.32** (.33)	.26** (.27)	.17** (.17)	.09 (.09)

주) ( )내 수치는 r에 대응되는 Fisher의 Z'계수.

\* $p<.05$  \*\* $p<.01$

나.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간의 상관의 성차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간의 상관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문화성향의 4가지 하위 척도 점수와 갈등해결전략의 4가지 하위척도 점수간의 적률상관계수를 각각 산출한 다음, 이 두 상관계수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Fisher의 Z'계수를 구한 후 아래 제시된 공식에 의거하여 상관계수 크기의 차이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4>

와 같다.

<표 4> 문화성향 하위요인과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 크기의 차이검증

	$\sigma_{z'1-z'}$	Z협력	Z회피	Z양보	Z지배
수평개인	.08	-0.12	1.65	-0.12	-0.35
수직개인	.08	-0.94	0.59	1.18	-0.83
수평집단	.08	0.24	-1.18	0.94	-0.71
수직집단	.08	0.83	0.35	0.71	-0.71

주) 상관계수의 차이검증을 위한 공식

$$Z = \frac{z'_1 - z'_2}{\sigma_{z'_1 - z'_2}} \quad \text{단, } \sigma_{z'_1 - z'_2} = \sqrt{\frac{1}{N_1 - 3} + \frac{1}{N_2 - 3}}$$

두 상관계수의 차가 의미있기 위해서는  $p < .05$  수준의 양방검증에서  $|Z| > 1.96$ 이어야 하는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상관계수의 차이는 모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문화성향 하위요인과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은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을 살펴보고,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문화성향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 성향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그리고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보다는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는 한규석과 신수진(1999)의 지적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표집된 초등학생 중 남학생은 49.2%, 여학생은 55.6%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최태진(2006)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성향별 분포(남학생, 47.1%; 여학생, 54%)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독특성이나 수월성보다는 집단과의 조화와 공동체 의식을 더욱 중요시하는 학교교육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문화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직적 집단주의를 제외한 개인주의,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 모두에서 남학

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적인 성숙도나 발달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같은 연령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좀 더 성숙한 경향을 보이고, 자신의 성향에 대한 판단 역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초등학생의 갈등해결전략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절충 및 협력전략의 사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해결 전략 유형별 집단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절충 및 협력전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5, 6학년 학생들은 어느 정도 대인관계에 있어 의사소통기술을 익히고 있으며, 직접적 경험이나 가정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하여 친구와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서로의 욕구를 절충시키고 조절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두 집단 간 점수 차이를 보았을 때 절충 및 협력전략의 사용에 있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친사회적 전략 혹은 절충 및 협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견해(배선영, 1999; Chung & Asher, 1996)는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지적이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지적과 유사하다. 이는 여자들의 경우, 보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지적(Cross & Madson, 1997)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자 중학생들이 남자 중학생들에 비하여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희영과 천태복(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여아가 관계 지향적으로 사회화되어 대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Mills와 Rubin(199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절충 및 협력전략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 내에서의 조화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자들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로 보여진다. 회피전략은 전체집단이나 남, 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두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수직적 개인주의와는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회피전략이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이유는 사람들간의 위계, 불평등을 인정하되 집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조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며(Triandis, 1995, 2001), 수직적 개인주의자들이 낮은 점수를 보인 이유는 사람들간의 위계, 불평등을 인정하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대인관계 보다는 자신의 목표, 관심사를 지향하는 성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ingelis et al., 1995; Triandis, 2001).

지배전략은 전체집단에서 살펴볼 때 수평적 개인주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자들의 점수가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자들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문화성향과 갈등양상간의 관계성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의 지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개인주의 성향자들은 개인의 욕구와 목표가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계성 보다는 결과를 추구하며 이는 갈등장면에서 보다 경쟁적이거나 지배적인 스타일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Rahim (1992)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전체 대상의 결과를 볼 때 수평적 집단주의는 양보전략과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자들은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과 회피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견해(Trubisky, Ting-Toomey & Lin, 1991)와도 일치한다. 이는 사람들간의 동등성, 평등을 인정하며 집단의 조화를 지향하는 수평적 집단주의자들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의 크기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의 갈등해결전략은 문화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Fletcher, Olekalns와 Cieri(1999)는 문화는 관계성의 유형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기대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한 사회 내에서 개인들이 지니는 문화성향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갈등해결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화성향을 다룸으로써 아동들의 갈등해결과 관련된 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실제에 유용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먼저 문화성향과 갈등해결전략의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우간의 갈등이나 학교 폭력 등과 관련된 상담 장면에서 관련 초등학생의 문화성향을 평가해 보는 것이 이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상담 장면에서 문화성향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내담 초등학생에게 문화성향의 의미와 특성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것도 향후 관련 문제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실제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일부 하위 척도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해석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진령 · 유형근(2000). 집단 괴롭힘, 서울: 학지사.
- 김송이(2001). 또래 지위와 친구관계에 따른 아동의 또래갈등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표선(2003). 아동의 또래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2003). 심리극 기법을 이용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2002). 형제의 지위변인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옥철(2004). 초등학생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 고윤주 · 오원정(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5~121.
- 이희영 · 천태복(2005).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17(2), 228~239.
- 정선영(200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현 · 이희영(2012).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수해양교육연구 24(6), 793~805.
- 정혜영 · 김지현 · 이경화(2011). 갈등해결전략과 정서지능에 의한 아동의 또래지위 판별, 수산해양교육연구 23(2), 290-301.
- 조금호(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5(1), 104~139.
- 조은주(2005).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창욱 · 김진호(2004).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Leadership life skills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2), 509-539.
- 최태진(2006). 청소년의 문화성향에 따른 교우간 갈등해결 전략, 한국청소년연구 17(1), 5~31.
- 한규석(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규석 · 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93~310.
- 한제인(1994). 아동의 사회측정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원(2003). 아동의 정서표현 의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문표(1996). 고등학교 학생의 계열별 학교생활의 갈등요인과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sher, S. R., Parker, J. G., & Walker, D. L. (1996). Distinguishing friendship from accepta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assess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366~4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ung T., & Asher, S. R.(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2, 125~147.
- Coie, J. D., Pennington, B. F.(1976). Children's perceptions of deviance and disorder, *Child Development*, 47, 400~413.
- Collins, W. A., Laresn, B.,(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197~209.
- Collins, W. A., Laresn, B., & Mortensen, N. (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178~198.
- Cross, S. E., & Madson, L.(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ct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Damon, W.(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Fletcher, L., Olekalns, M., & Cieri, H. D.(1999). *Cultural Differences in Conflict Resoluti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the Asia-pacific Region*. Department of management working paper in organizational studies,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Laursen, B., Hartup, W. W., & Koplas, A. L. (1996). Towards understanding peer conflict, *Merrill-Palmer Quarterly*, 42, 76~102.
- Malloy, H. L., & McMurray, P.(1996). Conflict strategies and resolutions: Peer conflict in integrated early childhood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185~206.
- Miller, P. M., Danaher, D. L., & Forbes, D. (1986). Sex-relat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in children aged five and sev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543~548.
- Ohbuchi, K-I., Fukushima, O., & Tedeschi, J. T. (1999). Cultural values in conflict management: Goal orientation, goal attainment, and tactical decis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51~71.
- Rahim, M. A.(1992). *Measuring conflict in organization*, Westport, CT: Parage Publisher.
- Roff, M., Sells, S. B., & Golden, M. M. (1972). *Social adjust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childre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ose, A. J., & Asher, S. R.(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d to conflict with 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9~79.
- Shantz, C. U.(1987). Conflict betwe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283~305.
- Shantz, C. U., & Hobart, C. J.(1989).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Peers and siblings.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71~94)*, New York: Wiley.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Ting-Toomey, S.(1988). Intercultural conflict styles: A face-negotiation theory. In Y. Kim & W. Gudykunst (Eds.), *Theor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13~235)*, CA: Sage.
- Triandis, H. C.(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s*, 96, 506~529.
- Triandis, H. C.(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xford: Westview.
- Triandis, H. C.(2001),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9(6). 907~924.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M.(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 Gelfand, M. J.(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74, 118~129.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1985). Allocentric versus ide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ubisky, P., Ting-Toomey, S., & Lin, S. I. (1991).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self-monitoring on conflict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 65~84.

- 
- 논문접수일 : 2012년 12월 14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1월 03일  
2차 - 2013년 01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1월 13일